

BF 관점의 행정복지센터 환경 및 사용자 인식 분석

Analysis of Community Welfare Center's Environment and User Perception from the BF Perspective

○이 승 준* 장 재 원* 정 재 욱* 장 주 호* 김 성 주* 강 석 진**
Lee, Seung-Jun Jang, Jae-Won Jeong, Jae-Wook Jang, Ju-ho Kim, Seong-Ju Kang, Seok-Jin

키워드 : 무장애, 행정복지센터, 현장조사, 설문조사

Keywords : Barrier free, Community welfare center, Field survey, Questionnaire

201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에는 BF(Barrier-Free) 인증 취득이 의무화 되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건축물과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행정복지센터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공공청사의 대표적 유형으로서, BF인증 제도의 도입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제 건축물의 이용 편의로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J시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 중 3개는 BF 인증 의무화 이전 건립되었고, 나머지 3개는 BF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이다. 현장조사는 BF 인증기준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F 인증 점수와 사용자 인식(설문 결과)에는 차이가 있었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도 사용자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있었는데, 특히 화장실과 안내시설에 대한 불편과 불만이 높았다.

관련 공간	불편 사항(문제점)	이용자 의견
화장실	내부 선반 부재, 대변기 등받이 미설치	"짐을 둘 곳이 없어 불편", "등받이 필요"
화장실, 세면대	세면대 높이·크기 부적합	"휠체어에서 사용이 어렵다", "공간이 좁다"
세면대/수도	유도 센서 비직관성	"손을 어디에 두어야 물이 나오는지 헷갈림"
화장실 (조명)	자동점등 시스템 오작동 우려	"갑자기 꺼지거나 안 켜질 때가 있다"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 부족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다"
경사로	폭 좁고 경사각 심함, 턱 있음	"경사로나 들어가기 힘들다", "턱이 막혀 있다"

그림 2. 사용자의 주요 불편 사항 요약



그림 1. 현장조사 및 사용자 설문

둘째, 현장 조사 결과 화장실의 접근성, 건물 출입구의 경사로 각도, 각종 안내 사인의 경우 BF 인증 기준은 충족하지만 실제 이용에는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용자의 장애 특성에 따라서는 불편이 더 가중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 BF 인증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량적 기준과 함께 사용자 인식 및 편의 등을 반영한 정성적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인증을 받은 이후 사후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한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준공 후 일정 기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는 시스템 적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 유형별 행동 특성을 반영한 기준 및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위생시설(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현장조사와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는데, 공간 이용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을 고려함과 동시에 인체 공학적 관점에서 기존 치수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학부 과정

**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School of Architec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pted@gnu.ac.kr)